

중국 노동자를 과로로 몰매는 거대 배달 산업

유청희 집행위원장

이 지면을 통해 인도네시아 Grab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오토바이 택시 라이더들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확인해 왔다. 이는 인도네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중국 역시 라이더, 식품 전자상거래 업체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의 허마(Hema)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데이터 및 기술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 신선식품 슈퍼마켓 체인이다. 이 체인은 매장 반경 3km 권역에 30분 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하는데, 이 공간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풀필먼트 센터로도 활용한다. 이 체인에서는 해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식자재를 판매하는데 매장에서 고른 해산물을 조리해 주기도 한다. 고객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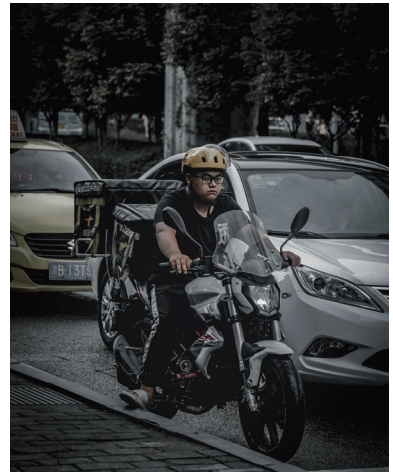
30분 내 배달 위해, 분류는 3분 이내에

지난 5월 13일, 허마 슈퍼마켓의 노동 실태가 기사화됐고, 이 슈퍼마켓에서 일해본 노동자들이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남기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¹⁾. 주문이 들어온 후 30분 안에 배달을 마쳐야 하니, 분류 작업은 3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분류 노동자들은 하루 3만 보 이상을 걸어야 한다. 11시간 이상 일을 하는 날도 있지만 급여는 11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됐다. 배달 노동자들은 빠른 속도를 요구받는다. 주문부터 30분 이내 배달이 완료되어야 하니 상품 분류에 3분이 소요될 경우, 5~7건의 배달을 25분 안에 마쳐야 한다. 엘리베이터 대기나 교통 신호에 멈추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 배달 라이더들은 속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임금은 낮고 노동자 대다수는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품

1) 誰在讓我們加速?一場生鮮電商分類員與消費者之間的討論.(누가 우리를 서두르게 하는가?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분류 담당자와 소비자 간의 토론) 2026.5.13. <https://mp.weixin.qq.com/s/QkycBXjNoxpPzcWtjIDfCw>

파손이나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벌금까지 내야 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24년에도 있었다²⁾. 베이징의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가 고객의 부정적인 리뷰를 받은 후 자신의 휴대폰을 길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이 자신을 가로막자, 무릎을 꿇고 경찰에게 사과를 한 후 오토바이를 거칠게 넘어뜨리고 뛰어가 버리는 장면도 있었다. 이 역시 알리바바 소유의 음식 배달 플랫폼 어러머(Ele.me, 현재는 타오바오 상거우)가 만든 풍경이었다.



▲ 배달 노동자들을 과로로 옴매는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 : pixabay

전 세계 플랫폼 기업에 맞서, 만국의 라이더 연대하자

2024년 당시 배달 노동자들의 한 달 급여는 6,803위안(약 150만 원)이었는데, 5년 전보다 월평균 1,000위안 정도 줄어든 액수였다. 그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 달에 한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벌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일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은 초기에는 경쟁업체들을 밀어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후에는 보너스와 급여를 삭감하기 시작했다. 월급이 아니라 건당 보수를 받는 급여 체계는 노동자들이 더 긴 시간 일하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일하게 만들어 사고와 질병으로 몰아넣는다.

그 외에도, 플랫폼의 정책은 라이더의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은 고객들이 서비스 품질과 예상 배송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로 배달 라이더를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는 배달 노동자의 고객 스트레스를 높이고 시간 압박을 강화한다³⁾. 반대로 중국의 일부 플랫폼은 배달 지역을 제한하거나, 라이더에게 교대 근무를 의무화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배달 노동자들을 과로로 옴매는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가 세계적인 만큼, 노동자들도 세계 곳곳에서 싸우고 있다. 만국의 라이더가 연대할 시간이다. **알터**

2) 'Really squeezed': Why drivers in the world's largest food delivery market are having meltdowns.(정말 힘들다: 왜 세계 최대 음식 배달 시장의 배달 기사들이 한계에 다다랐는가.) 2024.10.18.

<https://edition.cnn.com/2024/10/17/business/china-food-delivery-drivers-meltdowns-intl-hnk/index.html>

3) Mao AL, Tian CM, Liu CX. The association between workloads and health hazard among delivery riders in China(중국 배달 노동자의 업무량과 건강 위험 간의 연관성). Front Public Health. 2025.